

# 陶淵明과 李滉의 『飲酒詩』 主題比較考察

田永實\*

## I. 序論

## II. 人生無常과 飲酒의 삶

## III. 安分自足하는 隱逸의 삶

## IV. 聖賢追頌의 삶

## V. 結論

## 參考文獻

## I. 서론

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빠질 수 없는 음료로 생각되어 왔고, 人間事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古代에는 神과 교류할 수 있는 仲介物로서 각종의 祭禮 의식에 반드시 사용이 되었다.

음주의 본질인 酒를 『說文解字』에서는 「酒」를 「就」라고 하였는데, 「就」는 ‘나아가다’는 뜻으로 사람의 성품이 선한 데로 나아가기도 하고 악한 데로 나아가기도 하는 까닭이 된다. 술의 기원은 儀狄이 술을 만들었는데 禹가 맛을 보고는 그 맛이 달콤해서 마침내 儀狄을 멀리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酒, 就也. 所以就人性之善惡. ...古者儀狄作酒醪, 禹嘗之而美, 遂疏儀狄) 1)

人類가 시작되면서 술은 여러 경로로 인간의 문화적인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 중에서 제사의식을 행한 후의 飲酒는 歌舞로 이어지고 이것이 詩歌 문학의 발전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술이 詩文에 자주 나타났으니, 술과 문학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는 인생의 일부분이며 또한 음주 후에는 개인의 참된 性情이 모두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참된 性情이 나타난 문학을 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진실한 감정이 나타난 작품을 탄생시킨다.2)

전원시인으로 알려진 陶淵明은 아울러 음주시를 지은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음주시의 배경은 전원생활을 두고 있다. 그가 관직을 버리고 歸去來한 것의 이유 중 하

\* 韓國外國語大學校BK21新韓中文化戰略事業團. 博士課程.jjykin@hanmail.net

1)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70), 754쪽

2) 餘我, 「酒與文學」, 『文學的境界』, (水芙蓉出版社, 1979), 61-62 쪽.

나는 전원생활에 대한 憧憬이었다. 전원엔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대하면서 술을 벌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원은 음주시의 좋은 창작 배경이 된다. 일찍이 蘇軾은 陶淵明에 대해 “나는 시인 중 아주 좋아하는 이는 없으나 오로지 陶淵明의 시만은 좋아한다.”(吾於詩人,無所甚好,獨好淵明之詩)<sup>3)</sup>라고 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하였고, 120여수에 달하는 和陶詩를 지었다.

退溪 李滉은 조선조 燕山君 7년 (1501)에서 宣祖 3년(1570)까지 생존한 성리학자로서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추송을 받는 인물이다. 退溪의 시는 文集 소재의 775제의 1086수, 別集 소재의 254제의 356수, 外集 소재의 98제의 199수, 續集 소재의 169제의 346수 등 총 1287제의 2013수이다. 형식상으로는 4, 5, 6, 7언이 있는데 주로 오언, 칠언이 위주인데, 칠언이 오언보다 많고, 근체가 고체보다 많다.<sup>4)</sup>

본 고에서는 中國 최고의 전원시인인 陶淵明과 朝鮮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退溪 李滉의 같은 題名인 음주시를 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양인의 관계는 李滉이 陶淵明의 시를 和韻하면서 비롯되었는데, ‘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詩의 韻과 같은 韻의 글자를 따서 詩를 짓는 것이며, 和詩는 그런 과정을 거쳐 지은 시를 말한다. 시간적으로는 천년 이상의 차이와 공간적으로는 조선과 중국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인이 동일한 소재인 술을 가지고 동일한 제명으로 작품을 지은 것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양 작품을 개별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많은데 비하여 양 작품을 同時에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제명이지만 같거나 다른 점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있기 때문에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양인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살았다. 陶淵明은 東晉이 망하고 宋이 개국 되는 난세에 살았고, 退溪는 조선조 士林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던 와중에서 일생을 보냈다. 출사에 관심이 없었음은 늦은 나이인 32세에 司馬試에 합격하고도 곧장 大科에 응하지 않고, 형과 모친의 권고에 의해 2년 뒤인 34세에 大科에 응시하여 출사하게 된다. 退溪가 陶淵明과 유사한 점은 관직에 있을 때도 항상 은거를 추구한 사실이다. 陶淵明은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귀거래를 표현했지만, 退溪는 그의 관직생활 중 49세에 사임장을 제출하고 解官을 요청하기도 하고, 50세에는 監司의 허락도 없이 근무지를 떠난 것은 그의 心中은 이미 은거에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인의 은거는 다른 한편 차이점이 있다. 陶淵明은 본래 성품이 자연을 좋아한 데다 宋朝를 부정하는 마음에서 은거를 결심했는데 退溪는 자신의 책임이 현실정치에 있기보다는 후세에 있음을 알고 후진 양성을 위한 은거를 희망했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 그들의 사상은 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노장과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陶淵明에 비하여 退溪는 보다 엄격했다.<sup>5)</sup>

退溪 李滉은 陶淵明에 대해 이미 14세 때에 “愛淵明詩, 慕其爲人”<sup>6)</sup>라면서 그의 시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까지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退溪가 陶淵明의 자연을 사랑하고, 벼슬살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간 사정까지도 흡사하다.<sup>7)</sup>

3) 楊家樂, 「追和陶淵明詩引」, 『蘇東坡全集』(臺北:世界書局,1983), 70쪽.

4) 退溪의 음주시는 陶淵明의 음주 20수를 그대로 和韻한 「和陶集飲酒二十首」를 말하는데 行과 字수가 동일하고 짝수구의 마지막 글자의 운을 전부 맞추었다.

5) 「答金惇書」, 『退溪全書』 3권, (서울:成均館大大東文化研究院, 1992), 62쪽.

6) 「年譜」 권1, 『退溪全書』 3권, (서울:成均館大大東文化研究院 1992), 576쪽.

기존의 한국에서의 退溪문학에 나타난 陶淵明에 대한 연구는 정규복의 「退溪와 醇正文學」, 「退溪문학과 陶淵明」, 張基槿의 「和陶集飲酒二十首에 나타난 東波와 退溪의 情趣」, 李家源의 「退溪先生の 和陶集飲酒二十首 初探」 등에서 볼 수 있다. 그 중 退溪의 음주시에 관한 사항은 이가원의 「和陶集飲酒二十首 初探」에서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이고, 陶淵明과의 비교부분은 정규복의 「退溪문학과 陶淵明」에서 陶淵明과 退溪의 음주시를 각 수 별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 양인의 작품에 나타난 특징적인 주제를 세 부분에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무상함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으로서의 음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두 작품에 나타난 은일에 대한 원인과 은일한 삶에서의 가난하지만 현실에 만족해 가는 작자의 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현실을 떠나 은일해 있는 생활상의 기준으로 隱者와 聖賢으로 두고 작품에서 학문의 陶冶와 聖賢追頌을 표현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陶淵明과 退溪의 음주시, 각각 20수도합 40수를 대상으로 나누어서 陶淵明의 작품은 孟二冬의 『陶淵明集譯註』(長春:吉林文史出版社, 1966)을 참고로 하였고, 李滉의 「和陶集飲酒二十首」은 『退溪先生文集』 권1를 참고 하였다.

## II. 人生無常과 飲酒의 삶

양인에게 술은 이 작품을 이끄는 중심 소재이다. 그들은 작품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자세는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陶淵明은 「五柳先生傳」에서 자신의 酒道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품은 술을 좋아하였으나, 집이 가난하여 언제나 얻을 수는 없었다.  
친구가 이것을 알고 술상을 차리고 그를 초청했다. 그러면 가서 서슴지 않고  
홀쩍 마셨으며, 마시면 반드시 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취한 후에는 선뜻  
물러났다. 절대로 떠나거나 머무르는데 미련을 두지 않았다. (性嗜酒,家貧不能常得;  
親旧知其如此,或置酒而招之.造飲輒盡,期在必醉,既醉而退,曾不吝情去留,)

비록 가난해서 자주는 마실 수 없었지만 한번 마시게 되면 취할 정도로 마신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도 사람들에게 주정을 부리지 않는 음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論語』에서 酒道를 “비록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셔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唯酒無量,不及亂)<sup>8)</sup>고 언급된 것과 같다. 다른 곳에서도 陶淵明의 그의 주도를 알 수 있다.

陶淵明이 스스로 이르기를 “본성이 술을 좋아하나, 집이 가난하여 늘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했으니, 내가 집에 있음에 역시 그러하다. 지금 무장에 와서 매일 저녁 좋은 술도 반가운 손님을 상대한다. 오늘 저녁은 우연히 홀로 마시며 상위의 『陽明集』을 들고 보는데, 왼 손으로 책을 잡고 오른 손으로 술잔을 든다. 술이 문득 다하니 그 즐거움이 도도한데 말로는 비유할 수 없다.(陶淵明云“性喜飲酒,家貧不能常得.”余在家亦然.今來武昌,

7) 李家源, 「退溪先生の 「和陶集飲酒」二十首 初探」, 『退溪學報』 52권, 9쪽.

8) 謝冰瑩, 邱燮友 等 譯編, 『四書讀本』, 『論語鄉黨』, 8章, (臺北:三民書局印行,1988), 175쪽

每夕旨酒佳客相對.今夕偶獨飲,取案上陽明集觀之,左執卷,右把杯,酒至輒盡,其樂陶陶,不可言喻.)<sup>9)</sup>

陶淵明은 작품에서 음주 행위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載醪祛所惑,觴來爲之盡.是語無不塞...

( 이 탁주 들고 와서, 모르는 것을 깨우쳐 달라고 하니 술잔 돌아오면 다 마셔 버리고 물으면 척척 대답해 주었지마는 ) 「제 18수」

若復不快飲,空負頭上市.但恨多謬誤,君當恕醉人.

( 만약에 다시 통쾌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머리 위의 망건에게 미안하리.

다만 나의 못된 소리 많더라도, 취한 사람이니 그대 너그러이 용서해 주오.) 「제20수」

위의 구절에서 살펴본 바처럼 陶淵明의 음주의 태도는 순수하고 진실하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竹林七賢의 노장 사상에 근거한 자유분방한 태도의 퇴폐적 음주와는 비교가 된다. 그래서 魯迅(1881-1936)은 “연명의 시에는 퇴폐의 구취가 없다.”(淵明的詩庶無頹廢之口臭)<sup>10)</sup> 라고 陶淵明의 순수성을 말하였다. 그런 순수함이 주도에도 이르게 되어 술 취하자 되는대로 몇 구절 시를 지어서 스스로 즐기니 이것이 음주시가 된 것이다.

退溪의 음주의 태도를 보자.

「제 1수」

無酒苦無悵,	술이 없으면 실로 즐거움 없으니,
有酒斯飲之.	술 있으면 혼자서도 마시며 지나네.
得閒方得樂,	마음이 한가해야 즐거움을 얻게 되니,
爲樂當及時.	즐거움을 누리려면 때 놓쳐선 아니 되리.
薰風鼓萬物,	훈훈한 바람이 만물을 고무시키니,
亨嘉今若茲.	형통하고 아름답게 오늘에 이르렀네.
物與我同樂,	나와 만물 다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니,
貧病後可疑.	가난하고 병 있던들 무엇이 걱정 될까.
豈不知彼榮,	어찌 저 영화를 알지 못하니,
虛名難久持.	헛된 이름이야 오래 가질 못하리라.

退溪는 술을 마시려면 아무 때나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한 然後에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바로 이 때에 마셔야만 제대로 음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음주는 술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고, 반대로 술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마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연명의 음주시 序文인 “余閑居寡歡 兼比夜已長 偶有名酒 無夕不飲.”(내가 조용히 살다 보니 달리 즐거운 일도 없고, 게다가 요즘 밤도 길어 졌는데, 우연히 귀한 술이 생겨, 저녁마다 빼놓지 않고 마시게 되었다.)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退溪는 음주시외에 다른 작품에서도 술을 마시며 한가로이 陶淵明과 韋應物의 시를 읊는다.(獨酌一杯酒 閒詠陶韋詩)<sup>11)</sup>고 한 것으로 보아 혼자서 한가한 때에 술을 마시며, 그 흥취를 돌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 8 수의 “酒無獨飲理”(술은

9) 秦朝鈺,『消寒詩話』,王夫之 等撰,『清詩話』(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1005쪽.

10) 魯迅,「魏晉氣風與文章之樂有關飲酒」,『魯迅選集』7권, (北京: 岩波書店,1976), 164쪽

11) 「和陶集移居韻二首」,『退溪先生文集』권1, 142쪽.

혼자 마시는 이치 없으니)에서 알 수 있듯이 늘 혼자서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인에게 술은 은밀한 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순수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술의 의미로 술에만 의지하지 않아서, 있으면 마시지만 없으면 억지로 찾아서 마시지는 않았다.

술을 마주하면서 두 시인은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감회를 나타내고 아울러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陶淵明을 살펴보자.

「제 1수」	
衰榮無定在,	영고성쇠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彼此更共之.	피차에 바뀌고 서로 돌게 된다.
邵生瓜田中,	오이밭 가운데 있는 소생이가,
寧似東陵時.	동릉후 였다고 어찌 알리오.
寒暑有代謝,	추위와 더위 교체하는 자연같이,
人道每如茲.	사람의 도리도 늘 그와 같다.
達人解其會,	그 이치를 터득하여 통달한 사람은,
逝將不復疑.	다시는 앞으로 미혹되지 않으리라.
忽與一觴酒,	문득 한 동이 술이 생겼으니,
日夕歡相持.	해가 저물었으니 밤새워 술이나 마셔야지.

陶淵明은 부귀영화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면서, 인생은 무상하다고 하고 있다. 東陵侯이었던 邵生이 오이 밭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 사실조차 알 수 없으니 사람의 道理는 계절이 변하는 자연의 현상과 같으니 인생은 더욱 더 헛된 것이다. 그런 감정에서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가 소용없다. 이런 세상에서 그런 무상함을 깨닫는 이는 오직 達人 뿐인데 자신은 달인이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迷惑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결국, 마지막 구절에서 술이 생기고 저녁이 되었으니 술을 마시면서 인생사의 是是非非를 떠나겠다는 작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제 11수」	
顏生稱爲仁,	안연은 어질다고 이름이 높았고,
榮公言有道.	영계기는 도통했다고 칭송되었으나.
屢空不獲年,	끼니 자주 거르고 오래 살지 못했고.
長飢至于老,	늡도록 굶주림에 시달렸네.
雖留身後名,	죽은 후의 명성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一生亦枯槁.	생전엔 굶주리며 누차하게 지냈으니.
死去何所知...	죽은 다음에야 알 것이 무엇이랴.

다른 한편으로 세속적인 부귀영예가 소용없음을 德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道通했다고 칭송을 받는 顏淵과 榮啓期를 빗대어서 표현했다. 사후에 이름은 남겼지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찌든 생활을 했으니 그런 삶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陶淵明에게 인생은 왜 무상하고 허무한 것인가. 그의 작품 속에서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외부적인 측면을 보자.

「제 3수」

道喪向千載,	도가 없어진 지 천년이나 되어 가는데,
人人惜其情.	사람마다 자기의 맑은 정 주기를 아끼네.
有酒不肯飲,	술이 있어도 함께 마시려 들지 않고,
但顧世間名.	세상의 명성만을 돌아볼 따름이네.
所以貴我身,	내 한 몸 소중히 하는 것이,
豈不在一生.	어찌 한 평생에 지나지 않겠는가.
一生復能幾,	한 평생이면 또 얼마나 되는가,
倏如流電驚.	홀연히 번쩍하고 지나가는 번개 같네.
鼎鼎百年內,	자질구레하게 백년 안에,
持此欲何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이 작품에서 작가가 살고 있는 세상은 道를 잃어버린 지 천년이나 지나도 변할 줄 모르는 곳이다. 이 道는 天道나 老子的 無爲自然의 道를 말한다. 사람마다 情도 없어지고, 자연의 도를 따르지도 않고, 결국, 세속적인 규범에 얽매여서 술도 같이 먹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세태 속에서 부귀영화도 한 평생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한순간 번쩍하는 번갯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길게 잡아 백년인 인생을 웅졸하게 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慨嘆하고 있다. 『莊子』의 「知北遊篇」에서 “雖有壽夭,相去幾何”(비록 오래살고 일찍 죽는 차이가 있다지만, 그 차이야 얼마나 되겠는가?)사람의 죽음조차도 道에 따른 자연 변화의 한 가지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짧은 인생에서 지혜와 이론으로 是非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生死를 초월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야만 도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부적인 측면은 다음의 작품에서 알 수 있다.

「제 19수」

疇昔苦長飢,	지난날 오랜 굶주림에 시달렸기에,
投耒去學仕.	쟁기 내던지고 벼슬살이 시작하였네.
將養不得節,	그래도 가족들 의식을 마련하지 못 하여서,
凍餒固纏己.	노상 춥고 배고픔이 나를 붙어 다녔네.
是時向立年,	그 때는 30에 가까운 나이였는데,
志意多所恥.	마음 속에는 부끄러움 많았네.
遂盡介然分,	드디어 내 본분을 지키고자,
拂衣歸田里.	옷을 털고 전원으로 돌아왔네.
冉冉星氣流,	어느덧 별 따라 세월이 흘러서,
亭亭復一紀.	어언간 또 12년이 지나 갔네.
世路廓悠悠,	세상사는 길이 넓고도 한정 없이 아득하여,
楊朱所以止.	양주같이 길 몰라 망설였네.
雖無揮金事,	비록 마구 뿌리고 쓸 돈은 없으나,
濁酒聊可恃.	탁주라도 마시며 속을 달래리.

陶淵明은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오랜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쟁기를 버리고 벼슬살이를 시작 하였지만, 추위와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에 그 벼슬살이가 매우 부끄러웠고 그런 마음이 귀거래를 결심하게 하고 실천하였으며, 죽을 때 까지 전원예 살 것을 다짐한다. 그 후에 “冉冉星氣流 亭亭復一紀.”구에서 표현된 것처럼 세월이 덧없이 흘러서 12년이 지나 갔다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준다. 작품의 후반부로 가면서 陶淵明이 산 인생은 넓고도

아득하니, 다시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그런 속에서 가난하지만 탁주 한잔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연명에게 무상함은 외부적으로는 無道한 사회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出仕한 기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의 무상함과 無道한 현실에서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가난이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理想과 現實 사이의 고민은 그를 더 무상함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벼슬살이를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는 아니었다. 이외에 다른 작품에서도 陶淵明의 가난과 벼슬살이의 갈등이 보인다.<sup>12)</sup>

飲酒詩의 창작시기가 귀거래의 전후이기 때문에 벼슬살이에 대한 미련보다는 그 기간동안의 헛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이한 것은 陶淵明은 작품에서 단순히 세상의 무상함과 출사의 부끄러움만을 표현하지 않고, 그런 자신의 근심거리를 술을 통하여 잊으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陶淵明은 자기의 인생사의 무상함이 가난함 때문에 했던 출사에 원인이 있음을 작품으로 말하고 있다.

제 10수의 제 5, 6구 “此行誰使然, 似爲飢所驅”(누구를 위해 왜 그 길을 갔던가, 아마도 굶주림에 몰려서 그랬던 것 같네.) 구절에서 가난함 때문에 떠나 먼 동해까지 종군을 가고 출사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 7, 8구에서는 “傾身營一飽, 少許便有餘.”(허나 노력하면 배는 채울 수 있고, 약간만 하여도 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라 하면서 출사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난을 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息駕歸閑居.”(가던 길 돌아서 한거하러 돌아왔네.)의 구절처럼 전원에 돌아오고 閑居한 것이 잘된 일임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면에서는 無道하여 昏迷해진 세상에서 헛됨을 잊게 해주는 해결책으로 술을 거론하면서 술 취한 자와 깨어 있는 자를 비교하고 있다.

제 13수의 작품에서 제1, 2구 “有客常同止 取捨邈異境”(두 사람 함께 살고 있으나, 취사함이 전혀 달랐네)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다양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다를 수 있음을 표현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左傳·襄公三十一年』에서도 “人心之不同, 如其面焉”(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이 그 얼굴이 다른 것과 같다.)<sup>13)</sup>고 말하고 있다. 이런 차이에 의해 타인과의 교류에서 받고 느끼는 문제들이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어서 무상함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작품의 “醒醉還相笑, 發言各不領.”(깼 자와 취한 자가 서로 비웃으며, 말을 해도 서로 통하지 않았네.)의 구절에서 깨어 있는 자와 취한 자가 서로 다투고 지내는 세상살이를 풍자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規規一何愚, 兀傲差若穎.”(고지식한 맹승이는 어리석고, 오히려 의기양양한 주정뱅이가 현명하다.)에서처럼 주정뱅이의 편을 들었다. 이것은 더러운 세상에서는 술 취해 있는 것이 맨 정신으로 있는 것 보다는 인생사의 더러움에 迷惑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도 잊게 된다.<sup>14)</sup>

退溪도 陶淵明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陶淵明처럼 가난과 잘못된 출사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sup>15)</sup>

12) 가난과 벼슬살이의 갈등을 표현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가난 때문에 출사한 것이 陶淵明에게는 불행이었음을 표현했다. 제 15수의 “若不委窮達, 素抱深可惜.”( 만약 곤궁과 영달을 도외시 않는다면 평생 지닌 정절 앞에 깊이 뉘우치리.)의 구절에서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제 16수 : “竟抱固窮節, 飢寒飽所更.”(결국 곤궁에 굴하지 않는 절개 지닌 채, 싫도록 굶주림과 추위만을 겪었네.)

13) 『左傳·襄公三十一年』, (臺北: 藝文印書館, 1976), 689쪽.

14) 술이 근심을 잊게 해주는 물건인 忘憂物이라는 표현은 陶淵明은 제 7수인 “汎此忘憂物, 遠我遺世情”의 구절에서 보이고, 退溪는 제12수의 “此時忘憂物, 吾亦可已之”의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술이 인생의 내면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를 잊게 해주는 물건으로 양 시인들은 보았다.

「제 10수」

所思在何許，	그리운 사람은 어디에 있나，
天涯與地隅。	하늘 가 아니면 땅 모퉁이 있네。
迢迢隔塵響，	멀고 멀어 세상소리를 가로 막고，
浩浩綿川塗。	넓디 넓은 천도가 이어졌다네。
人生如朝露，	인생은 아침 이슬 같은데，
羲馭不停驅。	희어는 물이를 멈추지 않네。
手中綠綺琴，	손 가운데 녹기의 거문고 마저，
絃絕悲有餘。	줄이 끊겨 슬픔만 남아있네。
獨有杯中物，	유독 저 잔에 술이 있어서，
時時慰索居。	때때로 외로움을 달래주네。

退溪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리운 이를 찾아 나서지만, 님은 하늘 저편으로 너무나 멀리 땅 끝 모퉁이까지 가 있고, 그 마저도 속세의 방해에 막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음을 표현했다. 이런 감정은 “人生如朝露”구절의 표현처럼 인생은 아침 이슬 같이 덧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진다. 그런데 이슬을 몰아내려 해를 물고 오는 수레는 멈추지를 않는다. 인생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사라질 안개처럼 자기 의지대로 다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아침의 이슬로 표현하고 있고, 세상의 매정함을 해를 물고 오는 수레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陶淵明과 마찬가지로 이런 슬픔은 술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聖賢의 道에 이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시인은 제 7수에서 주변의 산들이 변하는 것처럼 주위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四山花繁英，俄然暗衆綠。”(사방 산에 꽃들이 무성하고, 갑자기 초록으로 무성하니), 자신의 인생은 옛 성현을 따르지 못하는 석인(今我在也，而人皆籍吾第，令我百歲後，皆魚肉之矣。而帝寧能為石人邪!)<sup>16)</sup> 같음을 안타까워한다.(寧聞有石人.어찌 석인이 있단 말을 들었을까)

결국, 자기 인생은 이룬 것이 없는 무상한 것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不及望門牆，咄咄如吾生.문과 담을 바라보고 못 미쳐가니, 애답다, 내 인생과 같네.)

退溪는 陶淵明과 출사에 관한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연명과 마찬가지로 술을 세상의 근심을 잊게 해주는 것으로 보고 그도 그런 이유로 술을 마신다고 했다. 인생의 근심을 잊게 해주는 술에 대해 退溪는 몇 가지의 혜택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고 지내면 속세의 뜻도 없어지고 속세의 시비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酒無獨飲理，	술은 혼자 마시는 이치 없으니，
偶興聊自爲。	우연히 흥에 겨워 해보는 거네。
陶然形迹忘，	기뻐하여 형적조차 까마득한데，
況復嬰塵羈。	하물며 세상의 그물에 다시 얽히는가。

15)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작품은 제 17수이다. 蕭蕭草蓋屋，上雨而旁風，就燥屢移牀，收書故篋中。(쓸쓸한 띠 풀 엮어 지붕을 덮으니, 위에선 비가 세고 옆으론 바람이 들어오네. 마른 곳을 찾아 침상을 옮기며, 묵은 상자 꺼내어 책을 거두네.)

16) 司馬遷著，張贊照 撰，『魏其武安侯傳』，『史記』 권 178 ,(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0 ), 864쪽 .

이 작품은 제 8수의 일부 구절인데 술을 마시면 기뻐서 속세의 是非거리인 形迹을 잊게 되니 다시는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술 취했을 당시의 天真함이 술이 깬 자들에게 갈 것을 걱정하고 하고 있다. 제 2수에서 “醉中見天真<sup>17)</sup>, 那憂醒者傳<sup>18)</sup>.” (술 취한 그 가운데 천진함을 보여주니, 깨어 있는 사람에게 전해짐을 근심할까.)의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退溪가 천진함이 술이 깬 자들에게 가는 것을 꺼려한 이유는 그것은 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이고, 술 취한 자만이 迷惑에 빠지지 않은 천진한 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술이 주는 혜택은 인생사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잊게 해준다.

「제 18수」의 일부를 보자.

...酒中有妙理,	술 속에 묘한 이치 들어 있는데,
未必人人得.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네.
取樂酣呌中,	흥에 겨워 거나하게 떠드는 것은,
無乃汝曹惑.	너, 혹 아니고 누구인가.
當其乍醺醺,	마땅히 그 훈훈한 순간은,
浩氣兩間塞.	호기가 천지간에 가득 차누나.
釋惱而破吝...	번뇌도 풀어지고 회인도 깨져,

작품에서는 술이 번뇌를 잊게 해주는 것은 술 속에 묘한 이치가 있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酒中有妙理<sup>19)</sup>”의 구절은 杜甫의 시에서 언급된 것으로 술에 이런 묘한 이치가 있으니 침울해 진 마음을 달랠 만 하다.(濁醪有妙理, 庶用慰浮沈) 다른 한편으로는 구절의 후반부에서 표현 되었듯이 술을 마시면 浩氣로와 지니 번뇌도 사라지고 회한의 마음도 깨지게 된다.

이상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陶淵明과 李滉의 인생무상에 대한 관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인생의 무상함의 원인에서 陶淵明은 가난 때문에 출사한 것과 세상이 無道해져 가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退溪는 부조리한 세상과 是非에 싸여 있는 인생사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양인들은 술을 통하여 세속의 어려움을 잊거나 초연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Ⅲ. 安分自足하는 隱逸의 삶

陶淵明과 退溪의 음주시의 창작 시기는 陶淵明은 귀거래의 前後이고, 退溪는 50세 때의 落鄉 직후였다. 이후로 그들이 관직을 떠나 전원에서 은일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었으며, 음주시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陶淵明은 평생을 가난으로 고생하였고, 초가에 기거하고 해진 옷을 입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생활을 하면 누구나 서글프고 비참할 것이다. 陶淵明도 이것을 참지

17) 杜甫, 「寄李十二白二十韻」, 『全唐詩』 권225, 2430쪽. “劇談憐野逸, 嗜酒見天真”(호탕하게 이야기 하니 시골에 은거한 모습 어여쁘고, 술을 즐기니 천진함이 보이네.)

18) 李白, 「月下獨酌」 4首 中 2首, 『李太白詩集』 권 23, (臺北: 臺灣中華書局印行), 4쪽, “但得醉中趣, 勿爲醒者傳.”(다만 술 취한 가운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게나.)

19) 杜甫, 「晦日尋崔戡李封」, 『全唐詩』 권217, 2270쪽.

못하고 벼슬살이 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가난이 얼마나 힘들어는 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귀거래후에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孔子의 안분지족의 생활을 본받아 富貴貧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뜻있는 선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심이나 과욕이 없는 사람만이 유연하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또 옛사람들의 덕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陶淵明은 가난한 생활의 고통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마음을 평안히 하고, 이치를 터득한 것이다.

「제 5수」

結廬在人境，	사람 사는 고장에 농막 짓고 살아가니，
而無車馬喧。	수레와 말 시끄럽게 하며 찾는 이 없네.
問君何能爾，	그대 어떻게 그러할 수 있나 묻지만，
心遠地自偏。	마음이 멀어지면 땅은 절로 멀어진다네.
採菊東籬下，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꽃 따들고，
悠然見南山。	마음 유유히 멀리 남쪽의 산을 보네..
山氣日夕佳，	가을 산 기운은 저녁나절에 더욱 좋고，
飛鳥相與還。	날던 새들 짝지어 집으로 돌아가네.
此中有真意，	이 중에 참뜻이 들어 있으나，
欲辯已忘言。	잘 하려 해도 이미 말을 잊어 버렸네.

이 시는 陶淵明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쉽고 담담한 표현이지만, 그의 의식세계는 지극히 높다. 이 시에는 진원 속에 묻혀 잡된 잡념을 버리고 술과 詩文으로 깨끗이 살아가는 그의 생활태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 자신이 은거하는 곳은 깊은 山中도 아니고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農家도 아니다. 단지 사람들 속에 끼여 있는 평범한 草家이다. 이런 곳에 살면서 찾아오는 손님 없는 것을 서운해 하는 일은 없다. 그의 마음은 ‘心遠地自偏’처럼 세속에서 초월해 있으면서 만족하고 있다. 아울러 마음은 지극히 한가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주위 환경으로 옮겨진다. 그런 순간 남산을 바라보니 山色은 가을이고, 새들은 짝지어 돌아오니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情景은 독자로 하여금 無我地境에 빠지게 한다.<sup>20)</sup>

일반적으로 陶淵明의 전원에서의 은일 생활은 농사일을 직접 하는 것과 산수를 유람 한다든지, 이웃을 초청하거나 혹은 자기가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필자는 작품을 통하여 陶淵明이 안분지족의 은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그가 은일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은일을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 했는지를 보았고 세 번째는 은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작품 속에서 은일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 4수」

20) 王國維著, 馬自毅 注譯, 『新譯人間詞話』 3,4칙, (臺北: 三民書局, 2007), 5-6쪽.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 “寒波澹澹起, 白鳥悠悠下, 無我之境也. 有我之境, 以我觀物, 故物皆著我之色彩. 無我之境, 以物觀物, 故不知何者爲我, 何者爲物. (‘동쪽 담 밑에서 국화를 따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남쪽 산을 바라보니’와 ‘차가운 물결 넘실거리듯 일어나고, 흰 새 유유히 내려가네.’ 유아지경은 나로써 사물을 보는 것이니, 고로 사물 모두에 나의 색채가 드러나는 것이다. 무아지경은 사물로써 사물을 바라보니, 고로 어느 것이 내가 되고, 어느 것이 사물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栖栖失群鳥，  
 日暮猶獨飛。  
 裴回無定止，  
 夜夜聲轉悲。  
 厲響思清遠，  
 去來何所依。  
 因值孤生松，  
 斂翮遙來歸。  
 勁風無榮木，  
 此蔭獨不衰。  
 託身已得所，  
 千載不相違。

황망하구나 무리를 잃은 새는,  
 날 저물어도 여전히 홀로 날고 있네..  
 정착하지 못하고 노상 배회하면서,  
 밤마다 더욱 서글프게 우네.  
 날카로운 소리는 깨끗하고 먼 곳을 그리워하면서,  
 또한 잊지 못해 연연히 오락가락하네.  
 이윽고 외로이 서 있는 소나무를 만나,  
 먼 길 날아온 날개 접고 들었네.  
 세찬 바람에 나무를 꽃피우지 못할 새,  
 오직 시들지 않고 우거진 덩굴 속에 홀로선 소나무.  
 이미 나의 몸을 의탁할 곳을 얻었으니,  
 천년토록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리.

작품에서 시인은 자신을 무리에서 떨어져서 갈 곳 없이 배회하는 새 한 마리로 보고 있다. 이 새는 어느 곳도 갈 수 없어서 외롭게 날기만 하고, 밤이 되면 더욱 더 슬프게 운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떠돌다 외로운 소나무를 만나게 되어서 그곳이 자신이 몸을 맡길 곳을 알게 되고 이후로 이 孤松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왜 연명은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소나무에 맡겼을까? 그것은 세찬 바람으로 주위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없어지고, 소나무만 홀로 있으니 그런 상황이 외로운 자신의 처지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진 바람에도 굽히지 않고 늘 푸르게 우거져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자신도 世波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두 번째로 陶淵明은 자신의 은일이 즉흥적인 아닌 준비된 것임을 隱者들을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 6수」

行止千萬端，  
 誰知非與是。  
 是非苟相形，  
 雷同共譽毀。  
 三季多此事，  
 達士似不爾。  
 啾啾俗中惡，  
 且當從黃綺。

사람의 행실은 천차만별 하거늘,  
 그 옳고 그름을 누가 알겠는가.  
 멋대로 경솔하게 옳고 그른 것을 정해놓고,  
 뇌화부동하여 칭찬과 헐뜯으며 떠드네.  
 삼대 말엽에 그런 일 많았으나,  
 통달한 사람들은 이를 닮지 않았네.  
 참으로 딱한 속세의 어리석은 자들,  
 이제 나는 상산의 사호를 따르고자 하네.

사람의 행동은 모두 제 각각이어서 어느 누구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인간사회에서는 제 멋대로 是非를 정하여 다툼이 있고 혼란해진다. 이런 일이 殷, 夏, 周 삼대 이후에 많아져서 혼란스러워 졌지만 通達하는 이는 이런 世態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자연에서 만족한 은일을 위하여 통달한 이를 은일의 분명한 기준을 가진 隱者로 보았다. 그런 은자들로 商山四皓인 東園公, 角理先生, 夏黃公, 綺里季을 들고 있다. 商山四皓는 중국의 이상적 시대였던 殷, 夏, 周가 끝나고 秦의 始皇의 폭정을 피해 숨은 은둔자중의 한 무리이다. 작품의 達士는 『莊子』에는 達者로 나오는데 비록, 陶淵明이 달사로 쓰고 있지만, 思考의 基底에는 莊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莊子』의 언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莊子』의 「齊物論篇」에서 “凡物，無成與毀，復通爲一，唯達者，知爲通一”(무릇 만물은 완성도 파괴도 없으며 다시 통하여 한 가지 것이 된

다. 오직 통달한 사람만이 모든 것이 통하여 한 가지 됨을 안다.) 또, 「達生篇」에서는 “達命之情者,不務知之所無奈何”(천명의 진실에 통달한 사람은 운명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다.) 세속의 인간은 단지 자기를 위하여 私心으로써 어리석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달인의 생활 태도와 같이 속된 일을 잊고 육체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연의 無爲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心身이 충실해져 天地의 調和와 合一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통달한 은자를 쫓아가려는 은일 자세를 보여준다.<sup>21)</sup>

세 번째로는 陶淵明은 작품에서 은일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했다.

작자는 세상 속에서의 근심은 여전하지만, 현실에 만족한 삶의 즐거움을 은일의 즐거움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제14수」

...故人賞我趣,	마을의 옛 친구들이 나를 반기어,
挈壺相與至.	술병 들고서 함께 몰려서 찾아왔네.
班荆坐松下,	소나무 밑에서 자리 깔고 마시니,
數斟已復醉.	몇 잔 술을 마시니 벌써 취해 버렸네.
父老雜亂言,	마을 어른들 두서 없이 떠들고,
觴酌失行次.	술잔도 순서 없이 돌아가니.
不覺知有我,	취하여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데,
安知物爲貴.	더욱 부귀 귀한 줄을 어찌 알겠는가.
悠悠迷所留,	한가로이 마시고 아득한 경지에 드니,
酒中有深味.	술 속에 깊은 삶의 맛을 알리라.

아무런 구속 없는 전원생활에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자신의 거처에 친구들이 찾아온다. 준비된 자리도 없이 소나무 아래의 풀밭에 앉아 두서없이 떠들고 술을 마신다. 이 속에는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하지 않고, 세속의 걱정거리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한 삶이 중요한 것이고 지나치게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것도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sup>22)</sup>

결국, 自我와 事物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만 현실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은 참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참삶에 가까이 가는 한 방편으로 陶淵明은 술을 마시고 노상 취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陶淵明의 은일의 즐거움이 자신의 결심에 따라 은자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해졌고 여기에 속세에 있는 사람들의 방문으로 자신의 은일에 대해 더욱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退溪의 경우를 보자.

退溪는 34세에 등과한 후로 70평생을 벼슬살이만을 하지 않고 출사, 귀향, 교육, 강학등의 변화 많은 생애를 보냈다. 결국 그의 출사와 은일의 반복이었다.

退溪의 은일은 陶淵明과는 달리 전원에서의 은일이 아닌 벼슬살이에서 물러난 후의 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그의 작품에는 벼슬살이에 대한 인용이 자주 나타

21) 제 12수에서도 출사를 포기하고 은거에 들어 간 이를 거론하면서 은일의 결심을 분명히 한다. 前漢의 張摯는 은거 후 두문불출하여 평생 속세와 인연을 끊었고 後漢대의 楊仲理도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글을 가르친 것을 거론 하면서 앞으로 자기의 은일 생활은 이렇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22) 范善均, 「陶淵明의 飲酒詩 小考」, 『청주대학교 논문집』 12권, 1979년, 59쪽.

난다. 그가 벼슬길에 나서게 된 동기는 “친구들이 억지로 과거벼슬로 利祿을 얻을 것을 권하여서”(親舊強使之由科第取利祿)<sup>23)</sup> 학문의 목표를 벼슬에 둔 儒家적인 입장을 가진 退溪로서는 소극적이어도 벼슬에 대한 꿈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sup>24)</sup>

儒家의 교육을 받은 자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출사에 대한 이상과 꿈이 현실과 격리될 때 보통 은일을 생각한다. 그것은 강력한 봉건 체제에 길들여진 그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강력한 항거보다는 소극적이지만 은거하는 쪽을 고려했음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퇴계가 관직 생활을 하던 시기는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유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도학파의 중심인 士林의 정치적 理想 실현이 趙光祖를 끝으로 실패로 돌아간 때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상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중앙 정치 무대에서 향리로 옮기게 되니 이것이 陶淵明과는 다른 귀거래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때의 귀거래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에 복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러나 있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이상과 꿈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 외에 李相殷은 退溪의 은일 유형을 세 가지로 표현했다. 첫 번째는 조광조이후의 士林들의 출사 기피의 현상이고 두 번째는 사회에 연루되어 죽은 형의 비운이고, 마지막으로는 경륜에 뜻이 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sup>25)</sup>

본 고에서는 退溪의 은일을 출사를 포기하는 것과 무도한 세상이 싫어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아울러 이 작품 속에는 공통적으로 안분자족하여 은일에 성공한 隱者들처럼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 6수」

有人生卓然,	어떤 이는 뛰어나게 태어나고,
吾獨異於是.	나는 유독 이와는 다르네.
少愚晚益戇,	어려서 어리석어 늙을수록 더하니,
無成反有毀.	이름 없고 도리어 실패만 있네.
自耽衆所棄,	못사람이 버린 것을 혼자 즐기니,
屏迹亦宜爾.	자취를 감추는 게 마땅할 따름이네.
區區口體間,	입이나 몸이 구구하니,
豈必魚與綺.	어찌 반드시 고기와 비단옷이 있어야 하나.

작품에서는 은일에 들어가려는 작자의 심정이 세 단계로 나타나 있다. 먼저, 작품의 초반부( 1-4구)에서 자신의 관직생활이 자기만 유독 다르고, 이룬 것이 없고, 도리어 실패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반부(5-6구)에서 모든 사람이 버린 것을 혼자 즐기니 자신은 마땅히 자취를 감춰야 한다고 하면서 은일을 결심하게 된다. 결국 후반부(7-8구)에서 은일의 생활에서는 속세에서나 필요한 고기와 비단이 필요 없으니, 자신은 출사를 포기하고 은일을 하겠다고 한다.

다른 작품에서는 그의 은일이 出仕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無道한 무리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23) 「增退」 年譜 권1, 579쪽.

24) 실제로 退溪는 「戊午辭職疎一」에서 관직 생활 16년간 遞職된 것이 10번, 임명받고 謝恩하지 못한 것이 4번, 귀향함이 4번, 지방에 있으면서 사은하지 못한 적이 6번, 사퇴를 청함이 3번이라고 적고 있다. 「增進」 권 6, 172쪽.

25)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 서울: 瑞文文庫, 1978), 61-91쪽 참조.

「제 15수」

道邇求諸遠,	가까이에 있는 도를 먼 곳에서 찾으며,
滔滔曠安宅. <sup>26)</sup>	세상의 물결 속에 편안한 집 비워둔다.
哲人有緒言,	철인들은 가야할 곳 실마리 보였으니,
因可追心迹.	그 마음 자취 따라 찾아가면 되리라.
苟未及唯一,	공부하여 하나 됨에 이르지 못한다면,
何異諺聞百.	온갖 것 안다 해도 과장함과 다르리오.
常怪楚狂輩,	참으로 괴이하다 초나라 미친 무리,
忘自分黑白.	망령되어 제멋대로 흑백을 나누네.
遇聖不遜志,	성인을 만나도 겸손하지 못하고,
潔身還可惜.	자신만 깨끗하니 도리어 가소롭네.

이 작품에서는 세상이 도를 멀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가깝게 있는 도를 멀리 찾으며<sup>27)</sup> 仁이 있는 安宅을 비워 둔다. 두 번째는 哲人の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함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무도한 세상에서 은거가 제일이라는 초광의 무리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세태를 풍자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을 보고도 겸손치 못하는 세태를 풍자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런 무도한 세상을 피해 은일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退溪는 은일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은일의 생활 기준을 번잡과 고요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고 하였다.

「제 5수」

我本山野質,	나는 본래 산야 체질이니,
愛靜不愛喧.	고요함을 좋아하고 번잡은 싫도다.
愛喧固不可,	번잡을 좋아하는 것은 고로 할 수 없지만,
愛靜亦一偏.	고요를 좋아하는 것도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네.
君看大道人,	그대는 큰 도를 지닌 사람을 보니,
朝市等雲山.	저자도 구름산과 같네.
義安卽蹈之,	의에만 맞는다면 가리지 않고,
可往亦可還.	갈 수도 있고 또한 올 수도 있네.
但恐易磷緇,	단지 쉽게 인치될까 두려우니,
寧敦靜修言.	오히려 조용히 몸 닦는 게 좋겠구나.

자신은 산야의 체질이기 때문에 번잡이 싫고 고요를 좋아 하지만, 오로지 고요함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산림의 자연은 名利가 심한 조정이나 저자거리와 마찬가지로. 옳은 것이면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지만, 쉽게 속세에 때 묻을까 걱정이니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자신의 각오를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退溪가 바라는 은일인 것이다.

이상에서 陶, 李의 안분자족하는 은일 생활을 고찰 한 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관직을 포기하고 전원 생활에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은일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우연히 이루

26) 『孟子·離屢上』, 10章, 謝冰瑩, 邱燮友 等 譯編, 『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印行, 民國76年), 474쪽,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 (인은 사람이 살 편안한 집이며, 의는 사람이 밟아야 할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거처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니, 슬프도다!)”

27) 『孟子·離屢上』, 11章, 謝冰瑩, 邱燮友 等 譯編, 『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印行, 1988), 475쪽, “道邇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도는 가까이 있는데도 먼 곳에서 구하려 하고, 일은 쉬운데도 어려운 곳에서 찾는다.)”

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라던 은일의 생활은 이전에 비해 심적인 면은 한결 편안했지만 生活苦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부족한 것도 만족하면서 지내는 安分自足の 생활을 하면서 은일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퇴계는 은일의 원인으로 無道한 무리에서 피하려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임을 나타내고 있다.

#### IV. 聖賢追頌의 삶

陶淵明은 성현추송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공자와 은자들을 거론하고 있다.<sup>28)</sup> 그의 작품에서 영계기의 중복을 除하고 도합 8수에서 14인의 인물이 등장했다.

먼저 공자를 추송하고 유학을 추송한 작품을 보자.

陶淵明은 어려서부터 유교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제 16수의 “少年罕人事，遊好在六經” (어려서부터 속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육경에 묻혀 마음을 즐겼다.)에서 표현된 것처럼 육경을 기본으로 유교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로 공자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추송하지만, 항상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榮木」의 제 4수에서는 “先師遺訓，餘豈云墜四十無聞，斯不足畏。”(공자께서 남긴 가르침을 내 어찌 잊을 까. 사십에 이름 내지 못하면, 보잘 것 없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이론 것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공자의 언행을 적은 『論語』의 구절을 음주시에 인용하고 있다. 제 16수에서 “行向不惑”<sup>29)</sup>(어느새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니)은 『論語·爲政』4章의 구절이고, 제 11수의 “屢空不獲年”<sup>30)</sup>(끼니 자주 거르고 오래 살지 못하고)는 『論語·先進』18章의 구절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자가 말한 仁이 시의 구절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顏生稱爲仁，榮公言有道”(안연은 어질다고 이름이 높았고, 영계기는 도통했다고 칭송되었네.)

陶淵明은 유학을 으뜸으로 받들었음을 제 20수에서 알 수 있다.

羲農去我久，	복희와 신농이 오래 전에 죽은 후로，
舉世少夏真。	참으로 돌아갈 사람 전혀 없어라。
汲汲魯中叟，	노나라의 공자가 애쓰고 서둘러，
彌縫使其淳。	순박한 세상 만들고자 애를 썼네。
鳳鳥雖不至，	비록 태평성세의 봉황새는 와 주지 않았지만，
禮樂暫得新。	잠시나마 예법과 음악을 가다듬었네。
洙泗輟微響，	수사 강가에 글 읽는 소리 끊기자，
漂流逮狂秦。	미친 진나라까지 내려와서는。
詩書復何罪？	시서에 또 무슨 죄가 있다고，
一朝成灰塵。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나。
區區諸老翁，	한나라의 치밀한 많은 노학자들이，
爲事誠殷勤。	정성들여 유학을 되찾아 밝혔으나。
如何絕世下。	너무나 동떨어진 지금 세상엔。

28) 제16수에서는 예외적으로 은자가 아닌 문인을 알아주는 맹공을 거론하였다. 그 외의 인물은 모두 隱者를 대상으로 하였다.

29) 謝冰瑩, 邱燮友 等 譯編, 『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印行, 1988), 75쪽, “吾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30) 謝冰瑩, 邱燮友 等 譯編, 『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印行, 1988), 188쪽, “回也其庶乎屢空”(안회는 도에 가까이 도달하였으나, 늘 뒤주가 비었다.)

六籍無一親，	육경을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네，
終日馳車走。	종일토록 수레를 몰고 뛰어 달려도。
不見所問津。	나루터 묻는 이 보이지 않네，
若復不快飲，	만약에 다시 통쾌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空負頭上市。	머리 위의 망건에게 미안하리。
但恨多謬誤，	다만 나의 못된 소리 많더라도，
君當恕醉人。	취한 사람이라 너그러이 용서해 주오。

소박한 上古시대에서 시작된 예법은 복희나 신농 이후로 멀어진다. 그 후에 공자의 노력으로 잠시나마 예악과 학문도 살아난다. 그러나 공자가 죽고 글 읽는 소리 줄어들더니 결국 진시황에 의해 서책이 불타게 되고 많은 학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 후 한나라때 노학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육경을 살리지만 가까이 하는 자는 없고, 공자가 나루터에서 물었다는 長沮나 桀溺<sup>31)</sup>같이 은퇴하여 농사를 짓는 참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없음을 탄식한다. 유학을 살리고자 했던 공자나 한대의 학자들의 노력은 이제 찾을 수 없으니 자신은 통쾌하게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陶淵明이 추송한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자연에서 은거 생활을 했던 자들이다. 이들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생을 배고픔에 고통을 안고 살았던 인물을 말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제 11수에서 언급된 顏淵과 榮啓期를 들고 있다. 안연은 仁德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늘 가난하여 뒤주가 비었고, 이로 인해 일찍 죽게 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영계기는 道通했지만 늙도록 굶주림에 시달렸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 2수에서는 영계기를 90이 되도록 곤궁함을 지켰다고 해서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연명이 이들을 존중한 것은 굶주린 부분이 아닌 어려움 속에서도 義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義를 지키면서 굶주린 또 다른 인물들로는 제2수에서 伯夷와 叔齊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殷나라가 망하고 周나라가 군림하자 首陽山에 들어가 周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사리만을 캐먹다가 죽게 된다. 그러면서 陶淵明은 善하면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義를 지킨 그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개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정치의 弊害를 피해 은거 생활에 들어간 隱者를 말하고 있다. 제1수의 東陵侯인 邵平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邵平은 秦나라 사람으로 진이 漢에 멸망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장안성 밖에서 오이를 심고 살았다. 이외에 진시황의 무단 정치를 피해 낙양 근처에 있는 상산으로 은거한 상산사호도 자신의 義를 위하여 세상을 피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앞에서 언급된 가난을 겪은 인물들과는 달리 세상의 근심에서 멀어진 인물들이다. 陶淵明은 그들을 자기의 은일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른 한편으로 12수의 仲理와 18수의 楊雄은 은거후의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은거한 후에 가난하지만 글을 모르는 자들이 가르침을 요청하면 기꺼이 응해주었다. 그러나 전쟁을 묻는 의롭지 못한 일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것이 陶淵明이 가지고 싶었던 은자로서의 삶의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陶淵明의 작품에서 성현의 추송은 무도한 세상을 벗어나 자연에 은일하면서 지낸 은자를 중심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그가 삶 속에서 추구하는 바가 은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退溪의 성현의 추송은 은자들과 유교적 소양이 있는 선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退溪는 隱者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은자 중에서는 陶淵明이 단연코 뛰어나다고

31) 『論語·微子』, 6章, 謝冰瑩, 邱燮友 等 譯編, 『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印行, 1988), 282쪽,

하고 있다.

「제 20수」

近代蘇雲卿, 漢時鄭子眞. 遯迹意何如, 聊欲還其淳. 千歲如流電, 萬事更故新. 伯夷本歸周, 黃公竟避秦. 古來英傑士, 終不墜風塵. 聖賢救世心, 豈必夙夜勤. 卓哉柴桑翁, 百世朝暮親. 湯湯洪流中, 惟子不迷津. 同好陸修靜, 晚負廬山巾. 安得酒如海, 喚起九原人.	가까운 시기의 소운경, 한나라때의 정자진. 자취를 숨긴 그 뜻은 어떠했던가, 저으기 순박으로 돌아가려 함이네. 천년이 흐르는 번개 같으니, 온갖 일이 옛것을 바꾸어 새로워 지네. 백이는 본래 주로 돌아갔는데, 황공은 끝내 진을 피하였다오. 예로부터 영결의 선비를 보면, 끝내 풍진속에 떨어지지 않네. 성현은 세상의 마음을 구하려고, 어찌 아침, 밤으로 부지런해야 하나. 우뚝하구나 시상의 노인, 백세를 아침 저녁 보듯이 하니. 넘실넘실 몰아치는 홍류 속에도, 이 분만이 나루에서 헤매지 않네. 마음 같이 하던 육수정이, 늦어서 여산건을 이었네. 어찌 바다같은 술을 가져서, 구원의 사람을 일으켜 보네.
------------------------------------------------------------------------------------------------------------------------------------------------------------------------------------------------------	-----------------------------------------------------------------------------------------------------------------------------------------------------------------------------------------------------------------------------------------------------------------------------------------------------------------------------------------------------------------------------------------------------------

작품에 등장하는 은자로 먼저 초시간성인 인물들로는 한대의 鄭子眞과 송대의 蘇雲卿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은일한 것은 순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 하였다. 초시간성인 은일이란 과거의 은거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똑같이 그 생생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sup>32)</sup> 또한 義를 굽히지 않고 은거한 伯夷와 黃公은 굽주림의 고통을 참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음을 높이고 있다.

退溪는 작품에서 영결의 선비는 德目으로 풍진 속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후반부에서 은자 중에서 陶淵明을 柴桑이라면서 백세를 아침저녁 보듯이 하고, 친구인 陸修靜 달리 세파에 흔들리지 않은 은자이고 퇴계 자신의 表象이니 자신도 그를 따라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반면에 退溪는 은자 외에도 학자로서 순수한 학문의 업적으로 우수한 자를 평가하고 있다.

「제 13수」

我思千載人, 蘆峰建陽境. 藏修一庵晦, 著書萬古醒. 往者待折衷, 來者得挈領.	내가 천 년 전 그 사람을 생각하니, 노봉과 건양 땅 그 곳에 계셨다네. 쉬지 않고 학문하여 집지어 숨어 살며, 책들을 지어내어 만고를 깨우쳤네. 옛날의 경전들은 그를 만나 손질되고, 후배들은 그를 배워 요령을 얻었다네.
----------------------------------------------------------	--------------------------------------------------------------------------------------------------------------------------------------------

32) 李慧淳, 「退溪시에 나타난 역사 의식」, 『退溪학연구』 제2호, (서울: 단국대退溪학연구소, 1988), 375쪽.

懿哉盛授受	아름답다! 지성으로 이어 받음 뛰어나,
源遠難魯穎	근원은 멀어 어리석고 영리함 섞이네.
口耳障狂瀾	천박한 학문의 거센 물결 막았으니,
心經嘉訓炳	심경의 한 책에 밝은 교훈 나타났네.

오랫동안 사모한 인물로 그는 朱子를 거론하면서 그의 저술의 훌륭함을 말하고 있다. 작품에서 ‘往者’는 朱子 이전의 經典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에 의해 상반되는 것을 取捨하고 타당한 것을 가려서 사물을 판단하는 折衷<sup>33)</sup>이 되었고, ‘來者’, 즉 후인들은 그를 배워 요령을 얻게 되니 후인에게 미친 학문의 영향 관계에서 주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후에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천박한 학문을 막아내니 『心經』<sup>34)</sup>같은 밝은 가르침이어서 빛난다고 칭송하고 있다. 以上은 책 속에서 학문의 길이 제일가는 기쁨으로 보고 그것의 길을 열어준 賢人으로 주자를 언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退溪 학문의 사상적 흐름을 말하고 있다. 舜임금과 周의 文王에서 시작하여 상서로운 기린으로 표현된 孔子에 이르고, 이후 성현들의 가르침이 잇혀 질 즈음에 程顥와 程頤 형제와 朱熹 등이 세상에 나타나고, 이후로 많은 현인이 나타났다. 그러나, 退溪 자신은 “吾生晚且僻, 獨昧修良貴.”(나는 늦게 외진 곳에 태어나, 고귀함을 닦아도 어두움을 못 벗었네.)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하여 “朝聞夕死可, 此言誠有味.”(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말씀에 참으로 깊은 맛이 있네.)라고 하고 있다.

「제 16수」

吾東號鄒魯,	이 땅은 예부터 추로라 불렀는데,
儒者誦六經.	선비들은 모두 다 육경을 암송했다.
豈無知好之,	그것을 좋아하고 배운 이 없었으랴만,
何人是有成.	몇이나 여기에 성공한 이 있었던고.
矯矯鄭烏川,	그 중에서 뛰어난 정포은은 씩씩해서,
守死終不更.	죽음으로 절개 지켜 변함이 없었도다.
佔畢文起衰,	점필재 뒤를 이어 기운 문운을 일으켜,
求道盈其庭.	구도하는 선비들이 그의 뜰을 메웠다.
有能靑出藍,	남색에서 나온 색깔은 더욱 파랗고,
金鄭相繼鳴.	김굉필과 정여창이 서로 이어 울리었다.
莫逮門下役,	나는 일찍이 그 문하에 이르지 못했기에,
撫躬傷幽情.	이 몸을 쓰다듬고 깊이 마음 상해하네.

이 작품의 특징은 조선유학의 근원과 흐름을 말한 것이다. 작품에서는 조선을 孔子와 孟子가 살던 鄒魯라 하며, 선비들의 조건으로 육경을 암송해야 했음을 말하고 있다. “儒

33) 司馬遷著, 張贊照 撰, 『史記·孔子世家』, 권 178,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0), 591쪽. “自天子王侯, 中國六藝者折中於夫子, 可謂至聖矣”(천자와 왕후로부터 중국의 육예라는 공부자에 이르러 절충되어 올바르게 되었다하니, 지극한 성인이라 할 만하다). 절충(折衷)은 절중(折中)과 같은 의미이다.

34) 유권중, 「구성적 실재론의 관점에 입각한 『心經』의 유교도덕심성 구성원리 고찰」, 『철학탐구』 권20, 2006, 303쪽, 중국 송나라 진덕수(眞德秀: 1178~1235)가 경전과 송나라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心性修養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찬한 책.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 중종 말 명종 초에 전래되었는데, 金安國이 이를 존송하여 그의 문인 許忠吉에게 전수한 데서 전해지기 시작함.

者誦六經.”(선비들은 육경을 암송했다.) 그러나 이 육경의 修練은 좋아해서 배운 이는 없지만, 이것에 성공한 위인들은 있다고 말하면서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다.

먼저 退溪는 鄭夢周의 ‘守死’하였음을 추송하였는데 이 말은 “돈독하게 믿어 배우기를 좋아하고, 착한 도를 죽음으로써 지켜야 한다.”(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sup>35)</sup>는 뜻으로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기상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金宗直 (1431-1492)은 ‘文起衰’ (쇠퇴한 文을 일으켜서)<sup>36)</sup>하여 후세 선비들의 求道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후세의 인물로는 金宗直의 제자인 金宏弼과 鄭汝昌을 거론하였고, 이들은 道義를 연마하고 성리학에 정통하였으며 공자와 주자의 학문을 범으로 삼았다. 아울러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출사에도 영향을 받게 됨을 19수의 “小少聞聖訓, 學優乃登仕.” (내 젊었을 때에 성인 교훈 들으니, 배운 뒤 여유 있으면 벼슬도 한다 했네.)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이상의 양인의 성현 追頌의 삶을 살펴 본 바 공통적인 점은 공자를 추송하여 학문적인 기본을 공자를 위시한 선비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연명은 주로 은자를 중심으로 추송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퇴계는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인물을 추송하였음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도연명은 은일 생활의 기준이 되는 인물을 추송한 반면 퇴계는 자기가 평생을 존경한 인물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 V. 結論

술은 陶淵明과 退溪에게는 인생사에서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이었다. 조선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인이 비록 和韻의 형식이지만 같은 題名의 작품을 쓴 것은 필자의 관심을 갖게 하였고 더 정확한 연구를 기하고자 그들의 작품인 음주시를 고찰해 보았다. 음주시의 내용을 주제별로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주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다.

양인의 무상감의 제일의 원인은 출사에 있었다. 陶淵明은 가난해서 시작한 벼슬살이 이지만 맞지 않았고, 전원으로 돌아가려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되면서 무상함만 가지게 되었다. 退溪는 연명처럼 가난함 때문에 시작된 관직 생활은 아니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士禍를 겪은 후 無道해져 가는 세상에서 더 이상 관직 생활은 무상함만 주는 결과가 되었다. 실제적으로는 관직 생활 16년간 遞職된 것이 10번, 임명받고 謝恩하지 못한 것이 4번, 귀향함이 4번, 지방에 있으면서 사은하지 못한 적이 6번, 사퇴를 청함이 3번이었다. 아울러 시인들이 살던 당시의 사회상은 작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무도함이 극에 달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근심을 잊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안분자족하는 은일의 삶이다.

관직을 포기하고 전원에 돌아오기 까지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취한 행동은 은일의 동경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은일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점을 작품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특히 陶淵明은 바라던 은일의 생활은 이전에 비해 심적인 면은 한결 편안했지만 생활고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그는 부족한 것도 만족하면서 지내는 安分自足的 생활을 하면서 은일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성현추송하는 삶이다.

35) 『論語·泰伯』 13章, 謝冰瑩, 邱燮友 等 譯編, 『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印行, 1988), 153쪽.

36) 文起衰: 소식의 <潮州韓文公廟 碑>에서 다음의 글귀가 있다.“文起八代之衰, 而道濟天下之溺”(문장은 팔대 동안이나 쇠퇴했던 기풍을 바로 일으켰으며, 도는 사도에 빠진 천하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그들은 단지 술만 마시고 인생에 대한 불만만을 토로하지 않고 작품을 통하여 자신이 배우고 싶어하는 인물을 언급하였다. 陶淵明은 공자와 배고픔 속에서도 義를 지킨 안연과 영계기, 백이와 숙제를 추송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 정치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은거한 은자를 높이 받들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商山四皓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은자들은 陶淵明에게는 은일 생활의 모범이니, 그가 추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陶淵明의 성현은 주로 은자인 반면 退溪의 경우는 학문에 위업이 있는 위인을 위주로 하였다. 작품에서도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로서 본분에 충실하여 도덕적이고 학문적인 면을 강조 하였다. 연명과 서로 병치되는 인물은 공자와 백이와 하황공인데 양인이 義를 중시한 점에서 일치한다. 유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에 기초를 세웠다는 주자를 제일로 언급하였다. 또한 조선의 성리학의 宗主로 정몽주를 삼고 그 후로 金宗直, 金宏弼, 정여상의 뛰어난 추송함을 보여 주었다.

이상과 같이 陶淵明과 退溪의 음주시의 주제를 유사한 것을 모아서 인생에 대한 무상감, 안분자족하는 은일의 삶 그리고 성현추송하는 삶으로 살펴보았다. 형식적으로는 退溪가 各首의 淸수구의 마지막 글자를 동일한 글자를 써서 운을 맞추는 화운의 관계이지만 전혀 아류라 여길 수 없을 정도로 退溪 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 주었다.

## 參考文獻

- 『全唐詩』, 中華書局, 1979.
- 『李太白詩集』 권 23, 臺北 臺灣中華書局印行.
- 孟二冬, 『陶淵明集譯註』,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66.
-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70.
- 魯迅, 「魏晉氣風與文章之樂有關飲酒」, 『魯迅選集』 7권, 北京, 岩波書店, 1976.
-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서울, 瑞文文庫, 1978.
- 王夫之 等撰, 『淸詩話』(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王夫之 等撰, 『淸詩話』(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餘我, 「酒與文學」, 『文學的境界』, 水芙蓉出版社, 1979.
- 郭紹虞 編選·富壽孫 校點, 『淸詩話續編』(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 楊家樂, 「追和陶淵明詩引」, 『蘇東坡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3.
- 李家源, 「退溪先生の 「和陶集飲酒」 二十首 初探」, 『退溪學報』 52권, 1987.
- 李慧淳, 「退溪시에 나타난 역사의식」, 『退溪학연구』 제2호, 서울, 단국대退溪학연구소, 1988.
- 謝冰瑩, 邱燮友 等 譯編, 『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印行, 1988.
- 『退溪全書』 3권, 『退溪先生言行通錄』 권2, 『退溪先生文集』 권 35, 서울, 成均館大大東文化研究院, 1992.
- 司馬遷著, 張贊照 撰, 「魏其武安侯傳」, 『史記』 권 178,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0.
- 유권중, 「구성적 실재론의 관점에 입각한 『心經』의 유교도덕심성 구성원리 고찰」, 『철학탐구』 권 20, 2006.
- 王國維, 著 馬自毅 注譯, 『新譯人間詞話』, 臺北, 三民書局, 2007.

## ABSTRACT

### A study of the subject in Tao Yuan Ming's and Yi Hwang's drinking poems

Jeon Youngsil

Wine is the thing which can forget our concern in our life. Tao Yuan Ming(陶淵明) and Yi Hwang(李滉) were representative of the poetry of Chosun and China. They also wrote the poem of drinking poems. Though Yi Hwang wrote his poem by way of the pattern of the same rhyme as Tao Yuan Ming's poem,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ir works. I recognized that they had the same subject through their drinking poems.

First, they expressed their feeling of transiency in the life. Why did they feel the transiency of their life?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m to serve as public officers. They can't also endure the wicked manner of other people. When they were in a public career, they always hoped to return to the country where we can avoid our worry.

Second, even if they had no enough money, they wanted to enjoy themselves in the country. They wanted to seclude in the country to overcome poverty, to avoid the disorder world and to give up the public officer.

Third, they also wrote a wise men's life which they respected .Especially, Tao Yuan Ming wanted to follow secluded men's nobility because he expected to live like them. Yi Hwang emphasized more academic and virtuous aspects than those of Tao Yuan Ming. Yi Hwang was one of the best scholar of Confucianism of Chosun. So he wanted to follow wise man's behavior.

key word : 陶淵明 , 李滉 , 飲酒詩, 隱逸 , 無常